동시대미술의 문법

홍경한의 시시일각

19세기 인상주의(Impressionism) 시기까지만 해도 미술은 명확한 경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같은 시대를 공유하는 신고전주의(Neoclassicism)와는 마치 물과 기름처럼 명료히 구분되었으며, 각 예술 사조는 자율성과 독자성을 바탕으로 고유한 영역을 형성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경계는 점차 무너지기 시작한다. 복잡다단한 현대 사회의 양상을 기존의 시각조형만으로는 충분히 담아내기 어렵다는 인식이 미술가들 사이에서 퍼지면서 장르 간, 매체 간 경계를 자발적으로 허물고 새로운 표현을 탐색하는 무리들이 나타났다. 특히 기술의 발전과 매체의 다양성은 이러한 흐름을 더욱 촉진했고, 이는 예술 내부에서조차 융합(convergence)과 혼종(hybridity)의 양상을 일반화하는데 주요하게 역할 했다.

현대미술의 이러한 변화는 프랑스 작가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을 필두로 한 다다이즘(Dadaism) 운동을 통해 더욱 본격화되었다. 뒤샹은 자전거 바퀴를 의자에 얹은 조형물을 선보이며, 몇몇 오브제의 조합만으로도 예술작품이 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 나아가 그는 상점에서 구입한 변기 하나를 미술관에 전시하고 '샘'(Fountain, 1917)이라는 제목을 붙임으로써 작품이란 작가의 개념과 정의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와 용도로 탈바꿈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이후 예술은 더욱 빠르고 급진적인 진화를 거듭하게 된다. 자연주의(Naturalism), 사실주의(Realism)와 같이 '보이는 세계'에서, 큐비즘(Cubism), 야수주의(Fauvism), 초현실주의(Surrealism) 등의 '생각을 그리는' 단계로 전환되었으며, 대중예술(Pop Art)과 고급예술(Fine Art) 사이의 틈을 메운 앤디 워홀(Andy Warhol)이나, 비어 있는 공간 자체를 작품으로 제시해 이미지와 텍스트, 시간과 공간, 물질성과 개념 사이의 관계를 재구성한 이브 클라인(Yves Klein)의 사례처럼 시간과 공간, 관념과 감각이 융합된 복합예술로 확장되기에 이른다.

21세기의 예술은 오랜 시간 유지해온 전통적 분간에서 자유롭다. 경계와 진역은 지속적으로 재편되고 상호 침투하며 혼합된다. 예술은 이제 장르와 형식의 범주를 넘어 제도, 자본, 상품, 노동 등 인간의 삶을 구성하고 지배하는 모든 요소를 포섭하며, 그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의미를 생성해낸다. 물론 엘리트와 대중, 순수예술과 상업예술, 예술품과 일상 사물 간의 위계조차 해체되었고, 주제와 소재, 기법 등 수백 년간 이어 온 시각예술의 고정관념 역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처럼 후기구조주의(Post-structuralism)로 대변되는 탈근대의 미술은 일정한 규범이나 형식 속에 가두거나 이미 정착한 양식 안에서 완결되지 않는다. 복합성과 개방성, 대중성과 다양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진보를 거듭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탈경계적(debordering) 움직임 속에서 관람객에게 전례 없는 감각적 경험까지 제안한다.(실제로 동시대 관람객들은 한 작품 안에 다양한 층위의 의미를 생성하는 상호작용성(interactivity)의 주체이자 능동적인 참여자로 위치한다)

결론적으로, 동시대에서 미술은 형식이 아닌 태도이자 관점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보다는, 작가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에 가치를 둔다. 미디엄의 순수성에 얽매이지 않고 비판적 사유를 위한 다학제적 관계성을 용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통 방식을 포함해 그 내용과 형식까지 근본적인 변화가 뚜렷해진 현실을 고려할 때 한국에 아직 남아 있는 '회화냐 조각이냐', '동양화냐 서양화냐' 하는 구분은 더 이상 중요한 기준이 되지 못한다. 그것은 단지 당대성이 내포된 문장을 짓기 위한 하나의 단어에 불과하며 다차원적인 세계를 해석하는 방식으로서의 문법의 일부일 따름이다. /미술평론가

기술·투자 확장 속, 제약업계 '정체성' 묻는다

기자 수첩

이청하
(유통&라이프부)

최근 들어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경영 전략을 다각화하고 있다. 투자 및 재무 구조 개선, 경영권 확보, 성장동력 강화 등 경영 목적과 사업 환경은 기업마다 다르다.

대표적으로 GC그룹은 유전체 분석 계열사인 GC지놈의 코스닥 상장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기업공개를 통해 보다 넓은 폭의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 고도화, 글로벌 시장 진출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GC지놈이 코스닥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면, GC그룹의 상장 계열사는 총 7개로 확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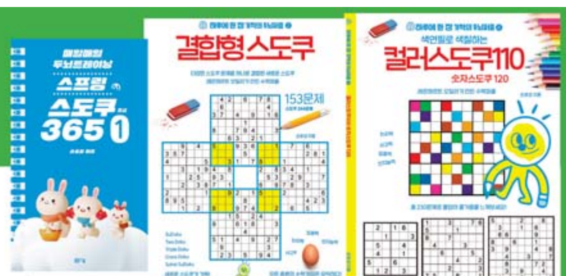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전문회사로 도약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은 HLB그룹은 신약개발부터 의약품 유통까지 아우르고 있다. 간암 치료제 '리보세라닙'을 앞세워 미국 식품의약국(FDA) 문을 두드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HLB제약이 HLB생명과학의 의약품 유통 전문 기업 신화어드밴스를 100% 자회사로 인수했다.

이밖에도 제약 관련 산업인 화장품, 보톡스를 비롯한 미용 에스테틱,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캐시카우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하다.

그러나 이들 기업이 어떤 기업 정신과 철학을 실천하고 있는지, 그 과정이 K제약·바이오 산업에 유의미한 가치를 남길 수 있을지는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국내에서 제약·바이오 산업은 국가 차원의 전략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시작은 훨씬 더 소박하고 절박한 바람에서 출발했다. 굵직한 제약 기업으로 남아 있는 기업들의 전통을 살펴보면, 선대 창업주들은 선진국의 기술을 부지런히 배우며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뚜렷한 사명감을 가졌다. 일제강점기, 전쟁, 산업화라는 시대적 배경이 그들의 꿈을 한층 더 절실하고 숭고한 과업으로 만들었는지도 모르겠다. /mlee236@metroseoul.co.kr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7	8						1
4		3		6	8			
			5					
						7		
6	5						3	4
		7						
					5			
			3	8		6		7
3						5	9	

7	2		9	1		5	8	
5								
	8				7			
		3						
						2		
			2				9	
								1
	1	5		8	4		2	3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5	7	8	2	9	3	4	6	1
4	1	3	7	6	8	2	5	9
2	9	6	5	1	4	8	7	3
8	4	1	9	3	6	7	2	5
6	5	2	8	7	1	9	3	4
9	3	7	4	5	2	1	8	6
7	8	9	6	4	5	3	1	2
1	2	5	3	8	9	6	4	7
3	6	4	1	2	7	5	9	8

7	2	4	9	1	3	5	8	6
5	6	1	8	4	2	7	3	9
3	8	9	5	6	7	1	4	2
2	4	3	1	7	5	9	6	8
8	5	7	6	2	9	3	1	4
1	9	6	4	3	8	2	7	5
6	3	8	2	5	1	4	9	7
4	7	2	3	9	6	8	5	1
9	1	5	7	8	4	6	2	3

오늘의 운세

5월 7일 (음 4월 10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안 되는 일을 억지로 하려 들지 마라. **48년생** 기다리던 투자를 할 때. **60년생** 중요하지 않은 전화를 항상 붙잡고 늘어지니 주변은 짜증. **72년생** 감기 등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일진. **84년생** 도리보다는 실속이 우선.

37년생 동업자와 사이에 재물손실. **49년생** 이사 방향을 잘 보고 가야. **61년생** 연인과 사랑은 깊어 가는데 떠나간 연인의 등장으로. **73년생** 형제의 재산 나눔 시비에 관여 말자. **85년생** 출장 다녀와서 문서계약이 성립되는 날.

38년생 박씨 친구를 만나니 어려운 일이 해결된다. **50년생** 등잔 밑이 어두운 현실. **62년생** 개업 일자로 내일부터는 무난하다. **74년생** 현실이 고달프거나 저조하다면 취침을 살펴볼 것. **86년생** 아침부터 서북쪽으로는 가지 말자.

39년생 김 씨 귀인이 나를 돕는다. **51년생** 목표를 향해 전진하니 오후에 달성한다. **63년생** 주식투자계획에 세심한 주의. **75년생** 일진은 주로 일상생활에서 흉한 것은 피하고 길한 것은 택하는 것이다. **87년생** 말하기를 삼가야.

40년생 낮5시에 운전 주의. **52년생** 오늘은 특히 음주는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64년생** 각자 빨간 신호일 때 질서를 지켜라. **76년생** 변화의 물결을 거부하기보다는 흐름에 합류해야. **88년생** 속신도 있겠으나 택일을 중요시.

41년생 길이 생기니 기회는 늘 있는 것. **53년생** 근심·걱정이 오히려 손재수를. **65년생** 부귀를 암시하는 재관(財官)은 겸손에서 시작. **77년생** 외출할 때에 흰색 옷이 활기차게 보일 것이다. **89년생** 기세를 올리면 황당한 일이 발생.

43년생 어둡고 습한 곳에서 사는 쥐는 병을 옮긴다. **55년생** 알면 피해가는데 도움이 된다. 긴다. **67년생** 부모님의 안부를 챙겨보라. **79년생** 테러 파시가 일치하는 인연을 소개받음. **91년생** 전통은 풍속을 뛰어넘어 하나의 신앙이다.

43년생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시작할 때. **55년생** 안 된다고 희망을 버릴 순 없다. **67년생** 길거리에 침 뱉는 습관은 고쳐라. **79년생** 매일 아침이 오듯 자연도 부메랑이니 깨끗하게 활용. **91년생** 흰색 구두를 바꿔 신어 볼 것.

44년생 욕심내다 빚만 진다. **56년생** 좀 더 일찍 선별 작업하면 목표의 두 배. **68년생** 심술이 발동하다 이별 수 온다. **80년생** 연인에게 지나치게 간섭하다 실없는 사람 된다. **92년생** 기도는 신비한 신통 술이 아니라 일상의 생활 연속.

45년생 오전 11시 지나 운전조심. **57년생** 소소한 공중도덕을 지키는 것이 일진을 길하게 한다. **69년생** 즉흥적 오후 쇼핑은 다음 날로 하자. **81년생** 바람대로 되니 감사하다. **93년생** 기도 발원을 통하여 의도치 않은 우환을 피해간다.

46년생 조직에서 벗어난 생각은 아예 접어라. **58년생** 칠성님께서 자식을 얻게 하니 그 무엇보다 감사. **70년생** 일진이 막히니 귀 막아라. **82년생** 흐트러진다면 기도와 명상으로 해결해보도록. **94년생** 평생 숙원인 부동산 자격증에 도전.

47년생 한눈팔지 말고 가까운 사람에게 성의를 갖도록. **59년생** 전문가의 권유에 따라 매수를 하니 도움이 되다. **71년생** 노력한 대가가 따른다. **83년생** 오후 늦게 기쁜 소식이 온다. **95년생** 운세가 대길하니 합격의 소원성취가 이뤄진다.

김상회의 四季

운명

운명은 타고나는 것일까 아니면 개척하는 것일까. 사람은 태어날 때 빈손으로 온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불교적 세계관과 인생관으로 보자면 그 빈손 안에 손금이 있지 않은가? 운명의 기본 길이라고 여겨지는 손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다. 이는 비유적인 표현으로써 석가모니의 혜안을 빌려보자면, "업만이 자기 재산"이라고 설파한 그 의미가 이해된다. 각자 모두는 업의 상속자인 것이다. 윤회를 인정하는 불가에서는 선업의 결과로 이생에 좋은 운명의 길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의미다.

그 반대인 악업의 결과는 험난한 질곡의 운명인 것은 말할 것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불교는 절대로 운명론이 아니다. 과거에도 매이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도 말며 다만 현재에 집중하라는 것이다. 현재에 내가 깨어 있으면 과거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미래는 현재의 결과이므로 내가 지금, 이 순간 바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미래는 당연히 좋은 업의 결과가 펼쳐질 것이니 공연히 걱정할 일이 없다. 그러니 운명은 개척되어 진다고 보는 것도 가한 얘기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선조들은 아기들이 태어날 때 좋은 날에 태어나기를 바라며 그 이전의 입태도 매우 중시 여겼기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사극 드라마를 보다 보면 관상감 관리가 왕과 왕비의 합궁 택일을 잘 따져서 진언하는 장면도 보인다. 명문 양반가나 왕실에서는 왕과 왕비의 합방은 물론 정실부인의 합방도 두 사람의 운기를 살펴 좋은 날을 택일하였고, 천기적으로도 천둥 벼락이 치거나 보름날이나 그믐날 같은 경우는 저러했다. 일식이나 월식이 있는 날도 꺼렸는데, 당시 사람들은 순조롭지 않은 자연 현상이 있을 때의 건강상, 정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집단의식이 있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종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66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768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